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11월 8일(주일) 제1073호



풍성한 감사 넘치는 사랑

국내 캠퍼스, 대학청년부, 차세대,
쌀·과일 등 추수감사절 헌물 모집

다음주(15일)는 추수감사주일이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부여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뜻 깊은 날이다.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보낼 수 있을까. 가장 값진 방법은 수고한 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면 더없이 좋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공동체 및 순별로 쌀과 과일, 옷 등 추수감사주일 헌물을 모집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 10개 캠퍼스 순과 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등에서 쌀과 과일 등의 추수감사주일 헌물을 봉헌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14일과 15일 본관 1층 로비 구제봉사 안내데스크에서, 양재 온누리교회는 14일 오후 6시까지 사랑을 로비에서 모집한다.

성도들이 귀하게 모은 추수감사절 헌물은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설, 교회 주변 어려운 이웃들과 불우시설 및 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월 마지막 주일을 긍휼사역 주일로 정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절기다.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다. 신앙박해를 받던 영국 청교도들이 1904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이듬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첫 수확을 하고 연 3일 동안의 축제가 유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은 1904년 9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차 공의회(서울 동천교회)에서 서경조 장로가 한반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동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정하자는 제의가 유례가 되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 주최

이재훈 목사 '선교적 책임-온누리교회' 주제로 발제

이재훈 담임목사가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에서 "온누리교회가 한국 교회와 글로벌 선교 공동체 간에 디딤돌을 놓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속초 켄싱턴스타호텔에서 개최된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

도자 포럼(Korean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에서 대형교회의 선교적 책임-온누리교회'를 주제로 발제했다.

온누리교회, OMSC, kriM이 공동 주최한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Korean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은 '대형교회

의 선교적 책임'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내외 선교단체 대표 및 리더십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에는 북미 대형교회는 물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대형교회의 관계자와 선교단체 리더들이 참석해 '대형교회와 선교'라는 개념을 성

서적, 선교적, 역사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발제하고, 화답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일 동안 13번의 발제와 화답이 이어졌다. 북미 대형교회-선교적 상관관계, 소형 및 중형 교회의 선교, 힐송 교회 네트워크: 세계 도시의 기독교 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도 했다.

〈관련기사6면〉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누리신문 취재기자 모집

분야: 취재기자

대상: 문서선교에 헌신한 분

취재 및 제작 경력자 우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 학력 증명서,

기명기사

서류접수: one@onnuri.org

문의: 02-3215-3193



“이제는 전문인 선교사를 꿈꿉니다”

양재 온누리교회 피아노 조율사 박창국 집사

박창국 집사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피아노를 관리하고 있다. 그의 손을 거친 피아노는 명품이 된다. 박 집사는 전국을 누비며 피아노를 조율하고, 고치는 일을 한다. 피아노 조율이라는 외길을 30년 동안 걸어온 전문가다. 10년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이 180도 달라졌다. 아웃리치를 가서 낚은 피아노를 도색하고, 조율하고 있다. ‘전문인 선교사’라는 새로운 꿈도 꾸고 있다. 신학을 공부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피아노 선율처럼 곱고 아름다운 그의 인생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피아노 건반 88개와 220여 개의 피아노 줄이 만나면 아름다운 연주가 완성된다. 피아노는 예민한 악기다. 기름칠 해주고, 조율해주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소리를 잃는다. 장식용 피아노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하듯 피아노도 정기 검진과 수리가 필요하다. 제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도 조율사의 손을 거쳐야 좋은 소리가 난다.

양재 온누리교회 박창국 집사는 피아노 조율 경력 30년 된 소리기술자다. 그는 어려서부터 소리에 관심이 많았다. 30년 전에는 악기가 워낙 귀해 서양 악기는 만져볼 기회가 없었다.

어느 날 곱지 않은 음색의 피아노를 고쳐보고자 무턱대고 뜯어보았다. 그런데 조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 소리는 더 엉망이 됐다. 그 사건과 삼촌의 제안이 더해져 피아노 조율 인생이 시작됐다. 당시 피아노 조율사는 생소한 직업이었다. 수도 극히 적었다. 그는 스승인 삼촌의 도움으로 망가졌던 피아노의 음색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박창국 집사는 1986년 해병대에 입대했다. 삼촌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세례도 받았다. 군 제대 후에는 삼촌과 함께 예배드리고, 부흥회도 같이 다녔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결혼 생활이 공허했다. 운동하고 친구 만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는 아내가 교회 생활로 바쁘다고 할 때마다 잔소리를 했다. 교회 모임이 잦던 아내와 30분 이상 대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됐다. 그러던 와중에 유명 피아노 대리점을 차렸다.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피아노 대리점 사업이 실패했다. 1997년 IMF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문을 닫고 말았다. 유명 피아노 대리점을 정리하고 종고 피아노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예수 만나고, 삶이 달라지다

그는 2005년 강남으로 이사를 왔다. 박창국 집사의 아내와 아들은 개척교회를 다니며 늘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 박 집사가 예수를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제목과 놓고 부르짖었다. 박 집사의 아내는 그를 좋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온누리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모이는 조기축구 동아리 ‘공사랑’도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데 한몫했다. 그는 교회에 적응하면서 삶이 변해갔다. 금요일에는 순 예배, 토요일에는 조기 축구 동아리 공사랑 참석, 주일에는 새가족사역팀 봉사를 시작했다.

교회에 발을 들여 놓고 삶의 기준이 달라졌다. 돈과 세상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2008년에는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고, 2009년에는 JDS(예수제자학교)과정을 마쳤다. JDS 간사로도 섬겼다. 아내와 함께 40일 새벽기도회에도 참석했다.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쉼 없이 사역했다.

한 번은 중국 아웃리치를 갔는데 한 기술학교에서 피아노 조율에 대한 강의를 의뢰했다. 그 기술학교는 미용, 자동차 정비, 치위생사 기술만을 전수하고 있었다. 박창국 집사는 그리 어렵지 않은 부탁이라 여기고 피아노 조율에 대해 강의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돈 받고 피아노를 조율하는 기술자였지만 앞으로는 무보수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 보자!”

그의 헌신과 다짐은 확고했다. 그간 바쁘게 달려온 삶을 재정비하며 자신의 기술이 선교지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양재 온누리교회 피아노 관리 도맡아

2010년 또 다른 아웃리치 현장에서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그 좋은 피아노가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황한 팀원들이 황급히 박 집사를 찾았다. 그 피아노를 들여다봤더니 줄이 끊어져 있었다. 그는 해머(피아노 현을 때리는 기구)로 두들기고, 소리를 조정하는 작업을 통해 음을 맞춰나갔다. 그의 재능을 눈여겨 본 이민욱 목사가 제안을 했다.

“양재 온누리교회 피아노를 조율해주시겠습니까?”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의 손을 타면 피아노 선율이 달라졌다. 청각에 민감한 박창국 집사는 연주자의 피아노 연주 소리만 들어도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베테랑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타는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피아



아웃리치 현장에서 피아노 조율 중인 박창국 집사.

노도 연주자에 따라 원하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는 피아노를 조율할 때 연주자와 호흡을 맞춘다. 문제점을 함께 파악한다. 피아노 조율은 조정과 점음 과정이 포함된다. 음정을 확인한 뒤 건반의 높이, 해머와 현 사이의 간격을 맞추는 조정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능숙하게 복원하는 정음을 한다. 양털과 나무로 된 해머는 기온과 습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는 양재 온누리교회의 모든 예배 때마다 피아노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냉방 기계를 가동했을 때에는 피아노 음이 높게 올라갔고, 난방 기계를 가동했을 때에는 음이 심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아노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양재 온누리교회 피아노를 고치고, 음을 만들었다. 교회의 특성상 예배가 많고, 반주자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꼼꼼히 살피고, 고쳐나갔다. 피아노 뚜껑을 열어 보면 줄 틈사이에 연필, 볼펜, 심지어 악보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종이와 연필이 걸려 피아노 소리가 안날 수

도 있습니다. 자신의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생각하고 소중히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인 선교사의 꿈

박창국 집사는 현재 신학생이다. 그가 신학을 하게 된 것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음악의 불모지인 곳에서 피아노 조율 기술과 복음을 함께 전하는 전문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메콩강 유역 5개국을 돌며 피아노 조율 기술을 전수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4천 880킬로미터에 달하는 메콩강 인근에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이 있다. 그곳에 3억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메콩강 유역 5개국은 빈민층이 많은 국가다. 그런데 피아노는 아직까지 상류층이 접하는 악기다. 그래서 그는 메콩강 5개국에 피아노를 모르는 이들에게 조율하는 기술을 전하면서 음악도 알리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찬양의 전파력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 기술은 70살이 넘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오직 예수

사도행전 4:12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포용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편협한니까?”라는 질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 당신들만 절대적 진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까?”라는 질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많고, 좋은 종교도 많은데 그들에게는 왜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여러분이 믿는 종교를 믿으라고 선교하는 일은 교만한 일이라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장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질문을 등산에 비유해서 합니다.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지만 모두 산봉우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뿐이지 구원으로 가는 길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길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믿는 것은 단순한 생각입니다. 예화조차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이 산봉우리로 올라갑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도 있고, 계곡으로 가는 길도 있고, 막다른 길도 있고,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헤매는 길도 있습니다. 모든 길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핍박

이런 질문이 본격화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를 역사적으로 모더니즘, 근대주의, 현대주의라고 합니다.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하고 과학적 진리를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지 않게 되었고, 성경은 신화적인 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과학적 권위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각자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뿐이지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사상과 흐름들이 지난 100년 동안 더 심해졌습니다. 일본이 복음화 되기 어려운 이유는 18세기와 19세기 모더니즘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사고를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객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의견과 생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무섭습니까. 인간의 경험과 생각, 판단을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으면 무서운 영적 사사시대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만해도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고백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럽, 북미,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물들어버렸습니다. 이 시대 교육과 문화사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교계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WCC나 세계교회협의회에 모여든 사람들의 발표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모두가 예배드리고, 구원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혼합주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용과 포용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모든 종교는 동일한 구원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관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유독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품으면 기독교가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도 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품지 않습니다. 가짜 관용입니다. 세계복음주의 대표적인 운동 ‘2010년 제3차 로잔대회’에서 케이프타운의 서약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진리 주장을 관용하면서도 그것을 문화적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입장은 논리적으로 자기 파괴적인데 그 이유는 유일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일한 진리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원주의는 관용을 궁극적 가치로 주장하지만 세속주의나 공격적인 무신론이 공격 영역을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억압적인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것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억압적인 형태입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법적으로 못쓰게 합니다. 억압적인 형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성도들이 주장하든 그것을 쓰든 상관없는데 못쓰게 합니

다.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라고 인정한다면 설교하고, 전파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죄가 되는 시대입니다. 동성결혼을 주례하지 않으면 목사도 잡혀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억압적인 형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일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관용하고, 포용한다는 것을 절대화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시대적 흐름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 절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행 4:12).

포스트모던 시대에 거대한 파도를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감지 못한 사람을 고친 후에 자신을 체포해 심문하는 종교지도자들에게 던진 베드로의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반복합니다. 부정강조는 최고의 강조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이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감지 못한 이를 고친 것은 예수님이 새 생명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들을 건져낸 구원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앉아 있는 사람에게 걷는 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새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만 하는 종교

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추구하도록 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구원은 어떤 궁극적 실재를 향하여 변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궁극적 실재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답하지 못합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막연한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를 추구하든지 궁극적인 실재를 추구하면 모두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구원은 자기 경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 곧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이뤄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어떤 도움이나 조언이나 본보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본성이 필요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종교적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인간 이상의 존재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시험을 이해하고, 빠져 있는 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이여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습니다. 그 능력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으로 구원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없이 긍휼이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유일한 구원자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13면에 계속)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1. 일본 비전교회
2. 아부다비 비전교회
3. 미주 비전교회



문봉주 목사

동경 온누리교회 담당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 공동체 본부장

알고, 기억하고,

일본선교 위해 7개 지역에 세워진 ‘일본비전교회’
협력, 일치, 확장 통해 일본전역으로 뻗어나가야

온누리교회는 해외 4개 권역에 30개 비전교회가 있다. 미주 13개 지역, 일본 7개 지역, 중국 6개 지역, 기타(오세아니아, 중동, 동남아시아) 4개 지역에 교회가 있다. 지난 10월 8일 ‘2015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과 비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권역별 소개와 중장기 사역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해외비전교회를 알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사역 계획에 대해 성도들과 나눌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동경 온누리교회 문봉주 목사가 일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사역 계획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의 역사

2000년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개 교회가 세워졌다. 2000년 3월 5일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고, 그해 4월 김사무엘 목사가 담당목사로 취임했다. 2001년에는 이영선 목사가 취임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세워진지 1년 뒤인 2001년 장재윤 목사가 도쿄 온누리교회를 개척했다. 이후 우에다 온누리교회, 2002년 아치요 온누리교회, 2004년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2008년 나고야 온누리교회, 2010년 교토 온누리교회가 차례로 문을 열었다. 벌써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창립 15주년, 도쿄 온누리교회가 창립 14주년을 맞이했다.

우에다, 요코하마, 교토 온누리교회는 아미나가 목사가 개척했다. 그는 일본교회 개척의 달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지도 상(그림 1)으로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치요, 도쿄, 요코하마, 우에다, 나고야, 교토, 오사카가 위치해 있다.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섬을 ‘혼슈’라고 한다. 도쿄 등 일본의 대도시가 모두 혼슈에 있는데 비전교회 7곳도 모두 혼슈에 위치해 있다.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의 규모

도쿄와 오사카는 일본을 대표하는 대도시답게 이곳의 비전교회는 다른 5개 비전교회와 규모면에서 다르다. 우선 예배인원이 많다(그림 2). 성인 기준으로 평균 350~450명 정도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다. 차세대까지 합치면 450~550명 정도 된다. 이 두 곳 비전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교회는 성도가 100명 미만이다. 소규모 교회다. 규모가 작다고 영향력이 작은 것은 절대 아니다. 한국교회와 비교해 규모가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일본교회 규모에 숫자 ‘0’을 더하면 한국교회랑 규모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일본에는 크리스천 비율이 0.2%도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쿄와 오사카 교회 규모는 그야말로 엄청난데, 다른 5개 교회도 일본교회 상황에 비추면 절대 작다



나고야 온누리비전교회

고 할 수 없다.

재정적인 면을 이야기하자면 도쿄와 오사카 온누리 비전교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5개 교회는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래도 성도 수의 차이, 비싼 교회 임대료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주재 한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일본 선교’ 위해 세워진 교회

일본 비전교회는 다른 권역에 세워진 해외 비전교회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일본 비전교회는 처음부터 ‘일본 선교’를 위해 세워졌다는 점이다. 다른 권역의 비전교회도 선교를 위해 세워졌지만 주 대상이 그 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교회로 세워졌다. 그러나 일본 비전교회는 일본 주재 한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일본 선교를 위해 세워졌다. 일본을 선교하기 위하여 한국인 목사와 한국인 성도가 협력하고,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다(그림 3). 일본에 있는 다른 한인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것이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일본인의 경우 세례 받고 교회에 정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분명 매주 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고는 있지만, 이들이 교인으로 정착해 교회를 섬기는 일원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공이 필요하다. 많은 목회자들이 느끼는 일본 비전교회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일본비전교회의 단기계획과 중장기 계획
일본어예배부가 ‘Sending Body’ 역할 해줘야

일본 비전교회의 목회 방향은 단기계획과 중장기 계획으로 나눌 수 있겠다.

우선 단기계획은 청년 연합 수양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교회의 부흥을 좌우하는 대상은

청년들이다. 청년부를 중점적으로 성장시켜 교회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연합 수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통비가 비싼 일본의 특성을 감안해 관서지방(오사카, 교토, 나고야)과 관동지방(도쿄, 아치요, 요코하마, 우에다)으로 나눠 연합 수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비전교회 중장기 목회 방향은 한마디로 ‘협력, 일치, 확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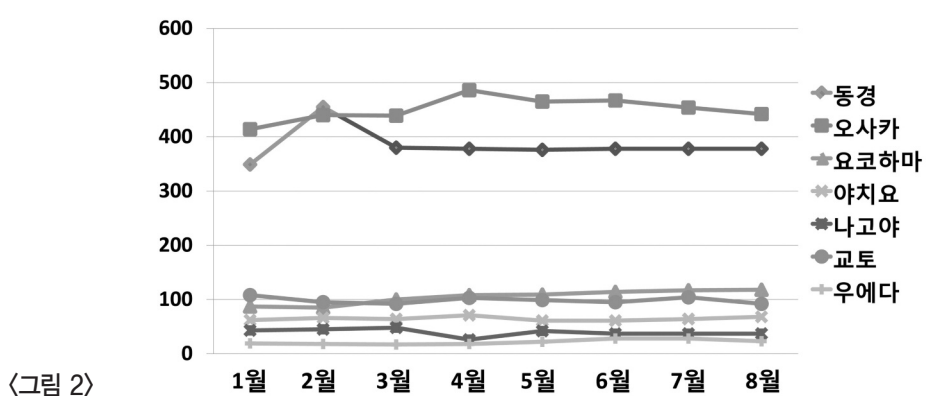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이다(그림 3). 한일 양국 성도와 목회자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 서울(서빙고 일본어예배)을 포함 8개 일본어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본인 목회자(서빙고 요시하라 목사, 아치요 니시아마 목사, 우에다 하카마타 목사, 교토 야마나카 목사)와 한국인 목회자(도쿄 문봉주 목사, 요코하마 서현 목사, 오사카 이영선 목사, 나고야 감철희 목사)가 각각 절반을 이루고 있다. 성도의 경우 일본인 성도와 한국인 성도가 공존하고 있

기도해 줘야한다



〈그림 1〉

일본지역 비전교회 주일예배 현황(1월~8월)



〈그림 2〉

지향하는 방향성



〈그림 3〉

다. 한국인 목회자의 경우 한국어 설교는 물론 일본어 설교가 가능한데 비해, 일본인 목회자의 경우 한국어 설교가 힘들다. 그렇기에 한일 양국 성도 모두를 원활하게 목양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한국어로만 하면 일본인 성도가 어려워하고, 일본어로만 하면 한국인 성도가 소외감을 느낀다. 담당목사로서 한일 양국 성도 모두를 품기 위해서 언어훈련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비전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이긴 하나, 한국인 성도의 헌신과 섬김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 목회자가 한국어 설교가 되지 않으면 한국인 성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럽게 재정 악화와 교회 일꾼 감소로 이어진다. 작은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기에 일본인 목회자들은 한국어 훈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어렵더라도 한국어로 설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언어란 것이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대안으로 한국 성도를 원활히 섬기기 위해서라도 한국인 부교역자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도쿄와 오사카를 제외하고는 5개 교회가 재정적 자립이 어렵다. 해비협(해외비전교회협력위원회)에서 한국인 부교역자 채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예산을 아끼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인 성도

와 일본인 성도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것은 마치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린 것과 같다. 막힌 담을 허물면 교회가 부흥하고, 일본인과 한국인이 협력한다면 일본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서빙고 일본어예배부와 협력의 긴밀히 필요하다. 현재 야치요, 우에다, 요코하마, 오사카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는 서빙고 일본어예배부에서 목회한 경력이 있다. 또 일본어예배부 출신 청년들이 몇 개 비전교회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서빙고 일본어예배부는 'Sending Body'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예배부에서의 경험이 있다고 해도 현지에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목회자나 간사가 파견되기 전에 재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찬양 가사를 통일하는 것도 일본어예배부와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가사가 아닌 것을 부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경배와 찬양 같은 한국 찬양을 번역하는데 있어서도 각 교회가 달리 번역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비전교회가 목회 협력이나 정보교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서빙고 일본어예배가 'Sending Body'로서 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름에 여러 아웃리치팀들이 각 비전교회로 오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오는 아웃리치팀이

아니라 특정화된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아웃리치팀이 와주길 바란다. 비전교회에 특히 도움이 되는 사역은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 찬양, 악기, 차세대 교육 등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비전교회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없다. 이는 결국 인재 부족으로 이어지는데, 아웃리치팀이 비전교회에 필요한 활동을 돕거나 유익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찬양팀을 파견하거나 예배 세미나, 악기 세미나 등을 개최해 온누리교회의 실제적인 찬양 스타일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대일 제자양육, 큐티 세미나 등도 매우 유익하다. 노방전도를 하거나 코리안나이트를 하는 전도팀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은 비전교회의 목회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절실하다.

일본선교를 위하여 계속 확장되어야한다 아낌없는 지원과 기도 뒷받침 되어야

‘일치’도 중요하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주일, 이재훈 목사님은 “예수바보가 됩시다”라는 아주 멋진 지향해야 할 말씀을 선포하셨다. 예수바보행진을 써 내려가는 교회는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즉 ‘말씀과 성령’에 충실해야 한다. 비전교회는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말씀에 충실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일본 교회의 태생적인 한계일 수가 있다. 성령집회가 굉장히 부족하고, 기도가 약하다. 나는 일본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새벽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기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일본 비전교회에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온누리교회의 영성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균형을 맞춰나가야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성령집회에 대한 서울본부의 지원이 높아야 한다고 본다. 강사지원 등 성령집회 개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말로 현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

일본 선교를 위하여 일본 전역으로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일본 온누리비전교회의 비전이다. 현재 7개 비전교회는 모두 일본 혼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일본 전역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밑으로는 규슈에서부터 위로는 홋카이도에까지 진출하는 것이 향후 일본 비전교회의 비전이자 과제다. 일본 비전교회는 일본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다. 그렇기에 일본 선교를 위하여 일본 전역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내년부터는 규슈 지역에 교회개척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다. 홋카이도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비전이다. 이를 위하여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일본 온누리비전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

대형교회의 선교적 책임이 무엇인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속초 컨벤션스타호텔에서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Korean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이 개최되었다. 국내외 선교단체 리더십들이 대거 참가해 '대형교회의 선교적 책임'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재훈 담임 목사도 4일 발제를 했다. 그 자리에서 이목사는 온누리교회의 선교에 대해 소개했다. 안성호 교수(네델란드 틴데일 신학대학원)는 온누리교회 같은 대형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발표했다. 이날 이재훈 목사와 안성호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했다.

/ 편집자 주



안성호 교수가 온누리교회 선교를 여섯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의 연합이 효과적이다. 온누리교회와 TIM은 최근 타 교회 및 단체의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지원한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 선택된 선교 지원자들을 인력이 필요한 교회와 단체에 추천하여, 온누리교회 선교사를 외부 선교 단체를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파송한다. 온누리교회는 외부 선교 단체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2014년에 126만 달러(약 12억 6천만 원)를 64개의 외부 선교 단체에 후원했다.

둘째, 대형교회는 비교적 큰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타문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운 타교회와 선교 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온누리교회의 Acts29 비전빌리지는 외부 선교 훈련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현재 3개의 현지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터닝 포인트(TP)'는 단기 선교사를 훈련하고, '온누리 선교 학교(OSOM)'는 장기 선교사를, '흙 투 흙'은 안식년 선교사에게 훈련을 제공한다.

셋째, 본국에서 선교사 관리가 평생 장기 선교사와 자녀들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을 보살피야 한다. 작은 교회와 선교 단체는 자원이 제한되어 안식년의 주거지, 의료 관리, 선교사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 지원 등이 어렵다. 이런 일들을 대형교회가 다뤄야 한다. 안식년 선교사를 위해 온누리교회는 현재 선교사 관리의 일환으로서 32가정에 주거지를 제공하고 협약체결 의료기관들을 통해 의료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온누리교회는 힐링 캠프, 흙 투 흙 등의 휴식 및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교사 자녀(MK)의 3차 교육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성 함양, 선교자원 콘텐츠 제공, 정신적, 재정적 지원

넷째, 대형교회는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할 책임이 있다. 그것을 위해 온누리교회는 국제적 선교 단계로부터 활발히 배워야 한다. 또한 온누리교회는 장기 선교사의 타문화 민감성과 언어유창성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온누리교회는 젊은 해외 한인으로서 다문화 환경에서 자란 이들을 잠재적 선교사 후보로 양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형교회는 다양한 선교자원과 콘텐츠를 다른 교회와 선교단체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온누리교회는 일본 선교를 위해 전도 집회 러브소나타와 CGNTV, 두란노를 설립했다. 2007년 처음 러브소나타가 열렸을 때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은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변화의 원인은 지역 이사회 구성으로 일본인 목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폭넓은 준비로 최소한 2년 동안 준비하여 러브소나타를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전도 축제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예는 CGNTV다. 기독교 프로그램을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170개가 넘는 나라에서 방송하고 있다. CGNTV 사역은 온누리교회의 가장 의미심장한 사역 중 하나다.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에 지사가 있고,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에 프로덕션 센터가 있는 CGNTV는 미디어 선교의 선봉에 서있다.

출판사 두란노는 교회, 선교단체, 선교사, 일반 교인들에게 타문화 선교에 필요한 도구, 문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목사, 선교사, 교인을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여섯째, 온누리교회 같은 대형교회가 풍부한 인적, 물질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의 자기 신학화와 자기 선교학화를 돕고, 한국의 신학 자료 준비를 위해 정신적, 재정적 지원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다. 가능한 다음 단계는 온누리교회가 선교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선교학 조사, 선교학 자료 개발, 선교학 문건 준비를 위한 기관을 세우는 것이다. 이 기관은 국내 및 국제 신학교 및 신학대학원과 협력하여 한국 교회를 위한, 현장에 기반을 둔 신학을 개발하는 한편, 최신 선교학 사상과 신학을 한국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적 교회 유지, 선교활동 보완 자기 신학화와 자기 선교학화 역량 개발 필요

대형교회인 온누리교회는 다음 중요 사항들을 유지하고, 지원하고,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

다. 첫째, 선교적 교회 형태가 당장은 제한을 주는 것 같더라도, 선택한 그 구조(교회와 선교의 연합)를 유지해야 한다. 교회와 초교파 단체가 손잡을 때 선교운동이 일어난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 그 둘이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면, 선교운동의 저하가 일어났다. 1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소멸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20세기 후반의 교회 중심 선교가 시작되어 힘을 얻고, 교회와 초교파 단체의 통합을 옹호하는 교회론이 등장했다. 대동부터 선교적 교회였던 온누리교회는 최선을 다해 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서도,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의 대형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제까지 온누리교회가 선교 활동에 에너지를 쏟아왔다면, 이제는 그 초점을 보완할 때다. 즉, 그 초점을 잃지 않으면서도, 선교 신학을 개발해야 한다. 선교사 파송과 선교 현지의 열매를 보는 것이 선교라는 건물의 외벽이라면, 신학과 선교학은 그 건물의 기반구조다. 외벽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튼튼한 구조와 기반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셋째, 최근 한국 교회는 자기 신학화와 자기 선교학화의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온누리교회는 이 운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언급했듯이, 선교학 연구 센터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신학대학원 및 선교단체와 연합하여, 한국과 아시아에 걸친 자기 신학화, 자기 선교학화 포럼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와 비서구 컨퍼런스에서 세계 기독교에 대한 최고의 자료를 수집 편찬하여 잡지로 발간하여 우리의 선교학자, 선교 참여자, 선교사에게 글로벌 선교학 동향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별적인 선교 연구를 격려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교회와 글로벌 선교 공동체 간에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2015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에서 이재훈 목사와 안성호 교수가 발표한 내용 전문은 온누리신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news.onnuri.org).

선교 자원 동원, 선교프로그램 개발, 평생 선교사와 자녀 관리

온누리교회는 대형교회의 선교적 역할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지하고, 지원하고,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

첫째, 대형교회는 일반 지역교회보다 확실히 인적, 재정적 자원이 많다. 따라서 대형교회는 그 자원을 선교를 위해 효과적으로 동원할 책임이 더 크다. 그것을 위해 교회와 선교

일대일 제자양육의 미래

나누고, 전수하고, 뺏어나가는 ‘일대일 제자양육’

일대일 제자양육을 논하다

1.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졌다
2. 일대일 제자양육의 미래

11월 7일 ‘일대일제자양육 30 페스티벌’이 열렸다. 온누리교회 양육의 큰 기둥인 일대일 제자양육의 목적과 유익을 되새기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일대일 제자양육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른다. 단순히 성도의 신앙 성숙을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차세대에게는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세상으로 뺏어나가 제자를 놓고 또 낚는 재생산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른다. 이날 행사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의 목적과 유익, 차세대 일대일 제자양육의 필요성과 목적, 일대일 대외사역의 영향력을 함께 공유했다. 다음은 일대일의 미래에 대한 글을 정리했다. / 편집자 주

* 아래 글들의 전문은 온누리신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news.onnuri.org).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인, 건강한 사회인

일대일 제자양육의 목적과 유익



이기훈 목사
(일대일사역본부장)

일대일 제자양육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서로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한다. 양육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언제나 동반자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동반자는 배우는 자세로 과정에 임해야한다. 양육자를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

야한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양육과정이다. 먼저 양육자와 동반자는 만나기 전부터 서로의 만남을 위하여 기도한다. 각자 자신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끝날 때까지 기도한다. 그리고 양육하는 동안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한다. 이렇게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의 신앙과 사역과 삶 속에서 영적 성장은 물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일대일 제자양육은 개인의 신앙 성숙 과정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물론 틀린 이해는 아니다. 그러나 일대일 제자양육은 개인의 신앙성숙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의 신앙성숙까지 영향을 준다. 나아가 사회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기 때문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양육자와 동반자 모두 교회는 물론 삶의 자리와 일터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이자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하게 한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건강한 신앙인을 지향한다. 건강한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둘째, 건강한 교인을 지향한다. 건강한 교인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셋째, 건강한 사회인을 지향한다. 건강한 사회인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결국 일대일 제자양육은 지금까지 개인과 교회로 국한되어 있던 개념을 넘어서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양육과정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삶의 양식이며 동시에 살아가는 방식이 된다.

차세대 일대일 제자양육



석승호 목사
(강동온누리 차세대)

기독교 교육학자 엘리스 넬슨은 그의 책 〈신앙교육의 터전〉에서 “회중이 곧 신앙학교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회중 안에서 신앙이 소통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도 이와 같을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다음세대 아이들이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신앙공동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

며 신앙의 기초를 쌓아주어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할 수 있다. 차세대 사역의 기본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체적, 지적, 사회·정서적, 영적인 면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다음세대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학습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특성이다. 따라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도 학습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 제자양육도 교육적이어야 한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청소년 일대일 제자양육은 양육자의 노하우가 중요하다. 특히 문화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특징을 알고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 것이 녹록치는 않다. 성인들은 자신의 스케줄을 따라 어떤 위치에서든 시간과 장소를 맞추어 일대일 제자양육을 진행한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 아이들은 주중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러 이동하기가 어렵다. 오랜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연령대도 있다. 유일하게 교회에 오는 주일도 주차와 공간 문제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을 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재 차세대 일대

일 제자양육은 열정과 사명감으로 가득한 선생님들의 특별한 헌신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앙을 경험하게 하고,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많은 양육자들이 배출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랑하는 양육자들이 모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일대일 제자양육을 담당해야 한다. 단순한 양육자를 넘어 롤 모델, 멘토로서 다음세대 아이들을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로 보살피는 사람,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다. 우리 신앙공동체가 ‘예수바보행진’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써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또 하나의 소통

강력한 재생산의 파급력

일대일 대외사역



허복만 장로

2003년 3월, 2천11만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Acts29’ 비전이다.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 목회 프로그램, 양육체계, 선교, 금후 사역 등의 사역을 국내 외 지역교회와 함께 나누기 위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이다. 이때부터 일대일 제자양육을 다른 교회들과 공유하는 대

외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현재 한국교회는 수적으로 침체 또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회자들이 목양을 주도하고,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목회방식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목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대일 제자양육 도입이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까지 일대일 사역을 요청하는 주 변교회에 꾸준히 일대일 양육자를 파송해 왔다. 그중에는 일대일 제자양육이 잘 정착되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곳도 있고, 또 정착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끝난 곳도 있

다. 하지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또한 새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강력한 선교의 도구인지를 알리고 교육시켜야 한다. 중국과 케냐에 있는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그 예다. 이들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변화되었고, 재생산이 이뤄졌다. 양육되어진 그들을 통해 또 다른 교회들로 양육이 확산되었다.

한국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그들의 숫자가 150만 명이라고 한다. 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들이 체류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 갈 때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결시켜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강력한 재생산의 파급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교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한사람을 통하여 끊임없이 재생산이 일어나 온 교회로 퍼져 나감으로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하여 핏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루어지길 소원한다.

“받은 사랑 돌려주는 것이 제 꿈입니다”

청소년들 가르치고, 사랑 베풀고 있는 W공동체 정채린 자매



청년,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다

청춘의 터널을 쉽게 빠져나가는 정답은 없었다. 지난 1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만난 W공동체 새가족 그룹 순장 정채린 자매는 자신을 성공한 청년은 아니지만 평범함, 성실함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질 좋은 교육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그녀는 지난해 W공동체 부대표 MC로 섬겼고, 올해는 새가족 순장으로 섬기고 있다. ‘중보기도자’라고 불릴 때 가장 기쁘다고 했다. 그윽한 향기가 나는 그녀가 궁금해졌다. 그녀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정채린 자매는 유명 문제집 회사에서 중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인터넷 강사다. 사실 그 직업은 그녀가 꿈꾸던 것이 아니었다. 3년 동안 임용고시를 준비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아르바이트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그녀를 인터넷 강사로 만들어줬다.

그녀는 학창시절 만난 좋은 선생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녀도 교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학교생활도 열심히 했다. 자신도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에는 교사의 직분이 남달라보였다.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교사의 역할이 정말 멋있어 보였다. 교사가 되는 꿈을 꾸고 사범대학에 진학했다. 3년 동안 임용고시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학생들을 가르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3년 동안 준비한 임용고시는 매년 낙방이었다. 마지막 시험만 통과하면 합격이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실패자라는 딱지가 붙은 것 같았다. 고된 고시생활을 해왔다. 눈뜨면 책상에 앉아 공부했다. 그런데 시험만 보면 실패하고, 또 공부하기를 반복했다.

“돈 없는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돈 많은 집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을 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어느 날 세 번째 임용고시에 떨어지고 의무감으로 책상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다른 길을 찾아야하는지 고민하면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임용고시 준비생이 아니라 취업준비생이 되었다. 그런데 이력서를 쓰면서 한계를 느꼈다. 자신의 스펙과 학력, 경력이 아무것도 없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 마구잡이로 이력서 쓰고 지원하기를 반복했다. 교사, 강사, 과외 선생님으로 용돈벌이를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벽돌이라도 쌓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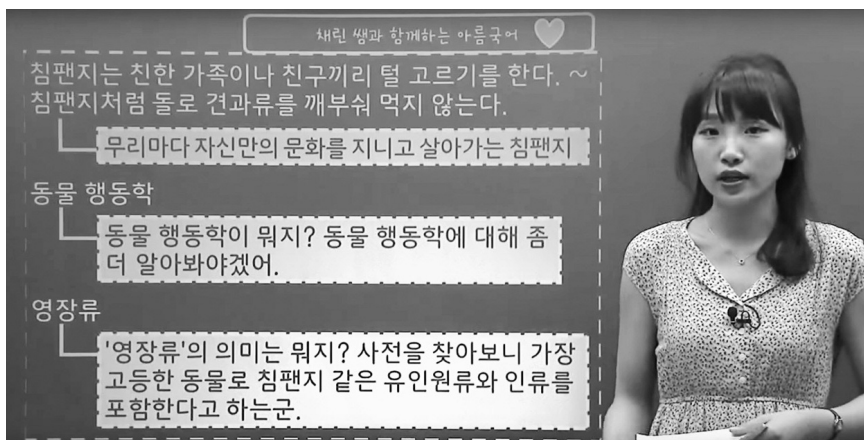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인터넷 강의 회사인

데, 이력서를 지참하고 면접을 보러오라는 전화였다. 순간 당황했다. 이력서를 넣은 적 없는 회사였기 때문이었다. 의심스럽고, 회사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그냥 안갈 수는 없었다.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겠다”기도한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기로 해 찾아간 곳은 문제집 회사였다. 면접결과 합격이었다.

서도 고민이 되었다. 그녀가 다시 찾게 된 것은 기도의 자리였다.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의 훈련 과정이 있었다.

그녀는 20대 초반에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을 해왔다. 홀로 믿음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힘들 때마다 그녀는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기도과 섬김이 그녀의 신앙을 지켜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등 국어 인터넷 강의를 하는 정채린 자매.

“저희 회사에서는 신입교사를 찾고 있었습니 다. 당신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를 살게 했다

처음에는 회사 입사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보수에 계약직이었다. 그래도 경력에 한 줄 정도 추가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다.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다보니 러브콜이 들어왔다. 그때 그녀는 청년들이 직장에 대해 갖는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다. 문제는 바쁜 회사생활을 하다 보니 신앙을 돌볼 겨를이 없어지고, 삶의 목표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임용고시 공부를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녀는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한국 문학작품을 모르는 선교사 자녀들에게도 자신이 녹화한 동영상과 문제집을 보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 국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선교사 자녀들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문학과 국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한 일이었다. 재능기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계약직 교사로도 섬기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청소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이 교실이기에 찾아 간 것이다. 그녀가 청소년들을 이토록 애타게 찾아가는 이유는 자신이 교사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교사에게 받은 사랑을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하게 된 사

건이 있었다.

그녀가 5살 때, 아버지가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로 인해 가정 경제가 무너지면서 치열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가보고 싶던 학원 한번 가보지 못했다.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똑같은 100미터 달리기를 해도 늘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뛰었지만 사교육을 받은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희망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 그녀에게 빛이 임했다. 그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준 선생님이 바로 그 빛이었다. 그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두 번이나 쓰러졌다. 그녀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뇌경색 경험이 있는 아버지가 두 번이나 쓰러진 것은 삶의 끝자락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학교 책상에 앉아 울었다. 통통 부은 눈으로 옆드려 있으면 담임선생님이 찾아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주었다.

“오늘은 괜찮나? 좀 어때? 힘드니?”

그 한마디가 그녀를 살게 했다. 아버지도 건강을 회복하셨다. 그때 그 사랑을 잊지 못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그토록 나눠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삶이자 희망이 되었다.

제자에게 온 한통의 편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죠.”

그녀의 꿈은 ‘즐거이는 직업, 제자를 낳는 직업’이다. 그녀에게는 이미 수많은 제자들이 있다. 그녀가 인터넷 강의와 계약직 교사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제자들 때문이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일이 얼마나 매력적이나고 되풀이도 했다.

어느 날 청소년들을 가르치던 중에 한 아이가 책상에 옆드려 자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다. 책상에 옆드려 자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왜 그렇게 피곤한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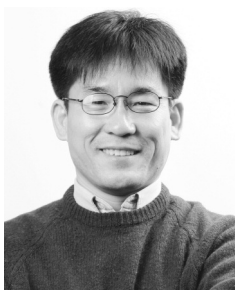
“밤에 잠을 안자니까요.”

그녀는 그 학생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알콜 중독자였다.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는 언어폭력을 일삼았다. 그녀는 그 학생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실천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그 친구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은데 확률적으로는 희박한 성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성적으로는 턱도 없겠지요? 저도 알지만 노력할겁니다. 성인이 되어 정신과 의사가 된다면 첫 월급으로 선생님에게 밥을 살 거예요.”

그녀는 다짐대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돌려주고 있었다. 사회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고 있다.

이기훈 목사의
개혁신앙의 흔적을 찾아서



이기훈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독일의 교회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대대적인 행사와 시설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종교개혁운동은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GRATIA)’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작됐다. 이는 성경적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신앙 운동이었고,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교회 갱신 운동이었다.

마틴 루터는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 <교회의 바벨론 감금>, <크리스천의 자유>라는 세 가지 논문을 통해서 당시 가톨릭교회와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성안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교황은 이러한 루터의 제안을 거부할 뿐 아니라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이런 결과로 인해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회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혁 신앙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고자 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영성여행

다. 유럽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혹은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개혁신앙의 현장을 찾아가 보기를 권한다. 그곳을 둘러봄으로써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오늘날 교회와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권한다.

여행을 시작하면서

인천에서 출발하는 이번 여행의 시작은 먼저 동유럽의 중심지인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는 것이다. 프라하는 2차 세계대전의 상황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고, 도시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기약 100년 전 이미 개혁을 시도했던 인물과 교회가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동유럽 여행을 간다면 반드시 둘러보아야 할 교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개혁 신앙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영성 여행의 여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될 것이다.

서울(인천)-프라하(Praha)-드레스덴(Dresden)-라이프치히(Leipzig)-비텐베르크(Wittenberg)-아이스레벤(Eisleben)-에르푸르트(Erfurt)-아이제나흐(Eisenach)-



◀ 95개조 반박문.

▲ 프라하 틴성당.

바르트부르크 성(Wartburg)

그리고 여력이 있다면 칼빈이 신앙개혁을

주도했던 스위스의 제네바(Geneve)까지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글은 이기훈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대하고, 기념하며 개혁신앙의 흔적과 의미를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동유럽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 점들을 작성한 것입니다.



목회칼럼 한화수 목사(CH630공동체)

그리스도 중심의 책임기

문화는 물고기가 사는 물과 같다. 물고기가 사는 곳에는 물이 있듯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화가 있다. 그런데 좋은 문화가 있고 좋지 않은 문화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말한 것과 같다.

세상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라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알곡도 있고, 동시에 가라지도 있다. 공존의 논리다. 문화도 이와 같다. 좋은 문화와 좋지 않은 문화가 공존한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게 보려는 것도 아니다. 나쁘게 보려는 것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솔직한 관찰이 우선적인 문제다. 따라서 사람은 좋은 문화 속에서 살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문화 속에서 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좋은 문화가 있고, 좋지 않은 문화가 있을까. 바로 생각 때문이다. 리처드 니버는 “문화란 어떤 목적에 따른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강은 자연이지만

운하는 문화이며, 석영은 자연이지만 연필은 문화다”라고 고도했다.

여기서 운하와 활촉과 연필에는 강과 석영과 나무에는 없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인간의 목적과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즉, 목적을 담은 생각과 그 생각에 따른 이 땅에서의 노력이 문화가 된다. 그래서 생각이 문화를 결정한다.

성숙한 생각이 성숙한 문화를, 미숙한 생각이 미숙한 문화를 낳는다. 좋은 생각이 좋은 문화를, 좋지 않은 생각이 좋지 않은 문화를 낳는다. 크리스천의 사명이 여기서 발견된다. 그것은 생각의 사명이다. 좋은 생각을 통하여 좋은 문화를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훈련받은 생각(Disciplined Thoughts)’이다. 좋은 생각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좋은 생

각은 힘써서 얻는 것이다. 즉, 훈련을 통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가치들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리처드 니버는 이렇게 말했다.

“자연의 선물은 인간의 의도나 의식적 노력 없이 받아지고 전해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선물은 받는 사람 편에서 애쓰는 것 없이 는 결코 가질 수 없다.”

생각도 이와 같다. 생각하는 데에 힘쓰게 되면, 좋은 문화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 훈련 받은 생각은 그에 따른 문화의 선물을 얻게 한다. 생각 훈련은 책임기를 통해 이뤄진다. 우리에게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는 이차적인 문제다. 우선적인 것은 책을 읽는 것이다. 책임기를 시작할 때 생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책임기’라 함은 이중의 운동을 말한다. 성경과 함께 일반서적을 향하고, 일반서적과 함께 성경을 향한다. 성경에 열려 있

어 세상을 열어주고, 세상에 열려 있어 성경을 열어준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 중심적 책임기다.

그리스도의 길은 언제나 이중의 길이였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까?”

“어떤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이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더불어 사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키는 책임기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방법 중 하나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중심의 책임기는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는 말씀을 살기 위해 세상을 읽어야 하고, 세상을 향하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이다.

양천공동체, 전도 아웃리치

105가구 방문 전도, 주민 8명 예수 영접, 24가정 긍정적

양천공동체 빌립다락방 소속 성도 43명이 지난달 18일 강원도 홍천에 있는 팔봉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서빙고와 양재 전도학교 팀원들과 동행한 '전도 아웃리치'였다. 방문전도 4팀, 영양제 전도 1팀으로 나뉘어 105가구를 방문해 전도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주민이 8명이었고, 24가정이 교회와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실했다. 이번 아웃리치에 참가한 빌립다락방 순원 대다수가 전도활동이 처음인 성도들이 많았기에 그 열매가 더 값졌다.



전도팀원이 마을 어르신 손을 꼭 붙잡고 교회로 인도하고 있다.



■간증

“우리는 사마리아의 전도자였다”

/ 박상록 집사(양천공동체 빌립다락방)

팔봉교회는 농촌의 미자립교회다.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전도 아웃리치’라는 답을 주셨다. 처음 회의할 때에는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도가 어렵다, 전도를 안 해

봤다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그때 전도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아웃리치에 임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마침 장경문 장로님이 서빙고와 양재 전도학교팀을 동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용기백배였다. 드디어 팔봉교회로 출발했다. 방문 전도 4개 팀,

영양제 전도 1개 팀을 구성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열까.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홍천에 도착했다. “안녕하십니까? 팔봉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첫 만남부터 술술 잘 풀렸다. 빈집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기다리던 사람인양 반갑게 반겼다. 할아버지가 교회로 영양 주사 맞으러 가시면서 할머니는 못 가게 했단다. 서러워하고 있었다고 하소연 하셨다. “아유, 영양제 맞으러 교회 가야죠”하며

할머니를 교회로 이끌었다. 할머니는 당신의 인생 이야기도 하셨다. 우리는 맞장구치며 복음을 전했다. “교회 가서서 영양제 맞으시고, 꼭 하나님 이야기 듣고 예수님도 만나셔야 해요.” 이날은 정말 은혜의 날이었다. 8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24가정이 교회와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이날 빌립다락방 성도들은 사마리아의 전도자였다. 전도활동이 처음인 사람들이 많았기에 더욱 값진 아웃리치가 아닐 수 없었다. 전도학교팀과의 협력사역이 귀하고, 감사한 열매들을 맺은 아웃리치였다.

제60회 성령수련회 개최

11월 21~22일, 파주 제자교회수양관

오는 21일부터 1박2일 동안 파주 제자교회수양관에서 제60회 성령수련회가 개최된다. 이번 성령수련회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동행, 성령과 영적전쟁, 성령과 종말’을 주제로 강의와 기도가 이어진다. 화비는 4만원이고, 교회 홈페이지나 i-School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성령수련회 담당 이해영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와 선교적 삶은 성령님과 동행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성령수련회에서 성령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고 경험하기를 바란다”면서 성도들을 초대했다.

성령수련회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온누리교회의 소중한 영성 프로그램이다. 성령



성령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체험과 영적 성숙을 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 충만하도록 돕고 있다. 문의: 김항철 팀장 010-6600-8442

황보은선 권사 011-1720-522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사랑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11월 13일, CTS아트홀

온누리교회가 주최하고 온사랑합창단이 주관하는 ‘온사랑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13일 CTS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내가 매일 기쁘게’를 주제로 진행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찬양들과 가을에 어울

리는 한국 가곡, 나폴리 민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고의 성악가들과 온사랑합창단의 찬양도 들을 수 있다. 온사랑합창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2011년 창단했다. 장애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문의: 문소현 총무 010-8784-6635

이주민선교학교 ‘Yes Mission!’ 10기 모집

14일부터 서빙고 시온홀

이주민선교학교 ‘Yes Mission!’ 10기를 모집한다. 이주민선교학교 ‘Yes Mission!’은 오는 14일부터 4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주민선교학교는 다문화권을 비롯해 한두, 아랍, 불교권 등 다양한 문화

와 관습을 배우는 과정이다. 타문화권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주민선교학교에서는 이주민에 선교에 대한 실제적 이론과 사례, 온누리 M센터 현장체험학습, 19개 외국어 예배공동체에서 동역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화비는 4만원. 문의: 010-3337-3927

포에버성가대 제4회 정기연주회

11월 14일 서빙고 경찬홀 ‘Silver Bells Festival’

포에버 성가대가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제4회 Silver Bells Festival’을 개최한다.

오는 14일 오후 5시에 막 오르는 축제에서 포에버 성가대는 구원 감사의 노래, 나의 삶, 나의 영혼의 노래, 우리 동요, 우리가락 찬양의 향기, 화합과 사랑의 노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

빙고 3부예배 챔버 오케스트라, KTX 용산 칸타빌레합창단, La Voce 남성 4중창, 온누리 햇빛남성합창단의 특선도 준비되어 있다.

포에버성가대는 65세 이상 실버들로 구성된 온누리교회 최고령 합창단이다.

온누리교회 예배 찬양, 맞춤전도 집

회, 아웃리치에서 찬양사역을 하고 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단원모집

지역: 온누리교회 교인 65세 이상 남녀

연습: 수요일 오전 10시~12시, 주일 오후 2시~4시

장소: 신관 101호(오디션, 찬송가 자유곡 1곡)

문의: 010-4781-0387, 010-8448-1728

11월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날짜: 2015년 11월 15일(주일) / 시간: 오후 3시 30분 부터
장소: 드림홀 / 대상: 2015년 9월 1일~10월 31일까지 등록한 성도

강남A 김우영 김은아 김일엽 송재빈 유영숙 이현주 정현일 조정열 최형록	김소애 김한솔 김해원 나은영 남진우 이강일 이신영	강남D 나순희 민소진 민철성 박경린 박원욱 박정기 박현석 정다운 황윤준	분당A 김혜경 윤찬정	서초A 원성준 이경애 정재완 정혜선 홍미경	이훈정	정희진	신나라	
강남B 강효실 권용범	강남C 김노유 박금혜 안현주 이재성 조경임	과천의왕 김영조 신양일	분당B 김의석 박진희 박혜성 이현숙	서초B 김선례 김현숙 백운자 송기명 유영진 이미진	서초C 김상경 이숙형 이운연 임동희	서초D 김조룡 남성현 이동민 이승재 정미영	송파 김영호 김은하 박정민 서준욱 이수연 한승희 황소현	양재 김경희A 김상욱 박순미 박종호 방광식 임동숙 정익환 최문선 최재원 최현진 하현진

제1073호 | 2015년 11월 8일(주일)

■ 성령수련회 참가 후기



/ 홍승수 성도

나는 성령체험을 했다

갑자기 극심한 통증에 응급실로 실려 간 적이 있었다. ‘급성담낭염’이었다. 무사히 담낭절제수술을 마쳤으나 혈변이 계속 나왔다. 30~40여분 계속된 내시경검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고통이 최고에 달했을 때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다. 평소 성경암송을 한 적이 없었는데 내시경실 들어가기 전 승강기 벽에 붙어 있던 성경구절이 떠올랐다.

“여호와 하나님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시편 30:2).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극심했던 고통이 사라지면서 온몸이 편안해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이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니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라고 했다.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문병 오신 목사님과 공동체 식구들도 성령체험이라고 했다. 내가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성령님이 그렇게 임재 하셨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2부 성가대 자매님이 본인이 가야 할 성령수련회에 나를 대신 보내려고 아내에게 말했다.

성령체험을 할 수 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나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버스에 올랐다. 이해영 목사님의 강의를 시작했다. 예배드릴 때 습관적으로 졸았는데 전혀 졸리지 않았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였다. 입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직도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

기도회 시간,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소리 내어 기도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었던 죄를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기억나지 않는 것도 회개할 테니 기억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안 되던 기도가 너무 잘 나왔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무언가 아른거렸다. 눈을 뜨고 봤으나 아무도 없었다.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또 눈앞에 무언가가 아른거렸다. 또 눈을 떴으나 역시 아무도 없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털이 곤두서는 찜릿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남들이 보면 창피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으나 제어가 안됐다. 50여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대성통곡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창피함은 없고, 가슴이 뻥 뚫리는 상쾌함이 가득했다. 그때 깨달았다. 성령님은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구나.

나는 성령체험을 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는데 미련한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신세계를 경험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령수련회였다.

■ 청년의 신앙간증



/ 차지현 자매(W공동체)

아버지와 성경책

W공동체 하면 나는 ‘사랑공동체’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W공동체를 섬겼다. 올해 10월에는 총무 MC로 세워졌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다. 지인의 추천으로 오게 된 W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나의 첫 예배는 눈물 바다였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였고, 말씀은 힘든 사회생활을 견딜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W공동체에 오면서 변화된 두 가지 체험이 있다. 첫째는 가정의 변화였다. 어릴 적부터 나를 뺀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교회를 다녔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시절 나는 방황했다. 엄마를 따라 교회만 다니던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아버지의 뇌종양 판정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오게 했다. 아버지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곳이 하나님 밖에 없었다.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었다.

내가 교회로 오게 된 결정적 계기는 성경책을 놓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성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성경책을 놓지 않으셨다. 그것을 보며 나는 금금증이 생겼다.

“무엇이 아버지의 생명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것일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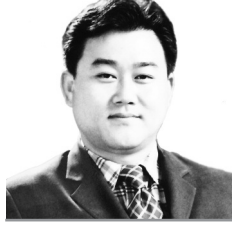
그제야 조금씩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 모습을 보게 됐다.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잡으면 안되는 게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셨다. 그 일이 내가 구원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질병으로 다시 하나 될 수 있었다. 사랑공동체로 만들어져 갔다. 뜻하신 곳에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었다.

지금 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었다. 간호사들은 아버지를 보고 기적이라고 말했다. 한 달에 한 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감진은 내게 기쁨이다. 아버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축복임을 경험했다.

두 번째 체험은 나 자신이 변화된 것이다. 공동체 순모임에서 나눔을 할 때면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정들이 내 안에 가득했다. 하지만 예배 안에서 그것들을 회복했다. 그날 이후 공동체에 기도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인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중보기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내가 돌아와 회개한 것이다.

■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편흥열 성도(서대문공동체)

새 생명과 천국소망을 붙잡고

2013년 가정, 직장, 경제를 동시에 잃은 뼈저린 낙망의 시기를 겪었다. 선배가 성경 공부하는 곳을 소개해줬는데 신천지라는 이단모임이었다. 당시 가톨릭 신자였던 나는 신천지가 무엇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여동생을 통해 내가 나가고 있는 성경공부 모임이 신천지라는 이단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생의 도움으로 온누리교회의 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에게 많은 위로와 기도를 받게 되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나를 외면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롭다. 무어라 표현 할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이 감사할 따름이다. 온누리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학교, 프리덤스쿨, 통독성경학교, 일대일 제자양육, 순모임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통해 많은 대화와 나눔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많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하였든 상관없이 항상 낮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형제를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나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온누리교회에 등록하러 오는 새신자들은 교회의 체계와 비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신앙관과 말씀의 체계를 되새겨 보고, 온누리교회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지금은 새로운 소망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있다. 그 기도에도 아직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일어나 걸어라, 십자가의 군병과 같이 담대하게 싸워라,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

영혼을 세상의 권세에 팔아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측은하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마음도 주셨다. 영혼을 구제하라는 마음도 주셨다.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다.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주셨다.

이제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을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제는 소망이 확실하다. 새 생명과 천국소망을 붙잡고 갈 것이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잘되는 것도, 못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

■ 유아세례간증



/ 아이: 어태윤, 부: 어성준, 모: 원혜성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내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나 목표를 이룬 뒤 공허감이 몰려왔다.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만 느껴지고, 삶에 회의가 찾아왔다. 그렇게 방황을 하던 때 고등학교 동창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를 초청했다. 시간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친구의 간청을 못 이겨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나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던 언니 오빠들이 좋아서 놀라가듯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뜨거운 회개와 함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대학시절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다. 결혼 2년 후 첫째 딸 서윤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 바쁜 생활을 고려

해 우리 마음대로 둘째 계획을 2~3년 뒤로 미루었다. 그러나 계획만 하면 바로 생길 줄 알았던 둘째가 2년이 지나도록 생기지 않았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자포자기 한 심정으로 둘째에 대한 생각을 접으려고 할 때 뜻하지 않게 둘째 태윤이의 임신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일을 병행하며 힘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태윤이를 작년 가을에 품에 안을 수 있었다. 가장 좋으실 때 준비하시고, 허락해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했다. 바쁜 직장일로 하나님과의 1:1 대면시간도, 기도도, 큐티도 소홀해지고, 세상일들을 핑계로 주님과 교제를 잊은 채 지냈던 것 같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이번 태윤이의 세례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마음들을 회개했다. 세례를 준비하면서 잠깐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지기를 기도한다. 서윤이와 태윤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기도한다.



장로칼럼 이종길 장로(가정사역공동체)

내가 사는 이유

집 앞에 말라 죽은 정원수를 새로 심는 계절이다.
구렁에서도 중앙분리대의 죽은 가로수를 육중한 기둥기로 뿌리째 들어내
새로 심더니, 요즘은 물을 주며 정성껏 보살피고 있다.
저 큰 나무들이 새 봄까지 잘 견뎌줄 수 있는 걸까?
나는 육순이 넘는 나이라도 굵따다 여기지 않음은, 젊음이 못 이룬 할 일이 있기 때문
이라 위로해 본다. 유혹이 손짓해도 헤쳐지 않을 자신감은, 젊음보다 더 오래 묵은
이력을 아직까지도 믿기 때문일까. 혹여 라도 다툼이 있을지언정 상처를 남기지 않
으려 함은, 젊음보다 넓어졌다고 믿는 포용 때문일까.
어찌되었건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 살날이 짧을지라도 조금하지 않음은,
젊음보다 더 가까운 예비된 곳이 있기 때문이라.
예전에는 내게 드리워진 당신의 소중함을, 썩어질 몸뚱이보다 부질없는 세상 욕심
보다 번번이 뒷전하며 알면서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당신 손길 퍼짐으로 내 삶이 당신의 것임을, 예수 남짓 회환으로 알게 하셨으니,
다듬고 가꾸신 대로 거름 삭히는 섭리되게 일깨워주셔서 정녕 나의 주인이시면,
남은 생 들풀 사이 바람처럼 숨결도 트이게 하시고 일어서게도 해 주십시오.
들풀 사이로 휘감는 소멸치 않는 바람이 불고 날려서 가을이 간다!
동면으로 더욱 찰져진 나의 삶이 머지않아 새 봄을 또 맞을진대,
버들겉이 눈뚱도 이려니와, 들녘 가득한 아지랑이 줄음도 이려니와
죄로 죽었던 나를 싹 트여 살리신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뉘 이르지 않아도 당신의 사랑임을 알게 하는 부활의 계절을 또 바라보겠습니다.
대개는 조반도 거른 채 총총히 예배 섬김으로 하나둘 비전환에 나타나는
공동체 리더십 여러분, 깊어만 가는 가을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따라 말은바 소명을 다 하시는 모습에 늘 가슴 먹먹함
의 감동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내가 아노라.”
다가오는 연말이면 또 새로운 직임을 받고 새롭게 팀을 꾸릴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
보다 낫다는 것 다시 되새김하며 굳건하게 그 자리에 함께 섬시다.



권사칼럼 최정주 권사(이수공동체)

예술융합태교

세계 최초로 태교에 대한 단행본이 우리나라에서 출판되었다. 조선시대 여성 실학자 사주당 이씨가 쓴 <태교신기(胎教新記)>가 그것이다. 그 밖에도 정몽주의 어머니 이씨 부인의 <태중문훈(胎中訓文)>, 조선 명의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 등의 문헌에서 태교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태교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태교를 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교를 ‘태중교육’이라고 말하고, 서양에서는 ‘산전훈련(Antenatal training)’으로 인식하고 있다. 똑같은 임신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교육과정을 우리 선조들은 뱃속의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서양에서는 임신한 엄마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재미있다.
태교가 중요한 이유는 태아기부터 3세까지의 뇌 발달이 평생의 건강과 인성, 지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태교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태아의 발달과정을 잘 이해하고, 태아와 오감을 통해 교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감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술융합태교’이다.
나는 임신한 엄마들을 자주 만난다. 한국에 예술융합태교연구소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부들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되라”고 권면한다. 태아의 안정에 집중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임신부들은 항상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별로 밝지가 않다. 그래서 그들에게 음악, 미술, 예술 활동을 통해 힐링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이 밝아지고, 행복하게 아기와 소통하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

나는 태교하는 엄마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엄마는 아기를 품었을 때 가장 훌륭해야 되고, 가장 행복해야 한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임신했을 때만 몸가짐을 단정히 한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은 후에도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태아를 가졌을 때만 커피를 줄이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부단히 몸을 만들지만 출산 후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신앙생활도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첫사랑을 간직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옛날 죄로 돌아가고, 새 옷은 팽개친 채 현 옷을 다시 찾아 걸치고 있기도 한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 이 때문에 영성이 흔들리고, 성화는 더디게 된다. 우리는 태아를 가진 임신부처럼 작은 행동과 말들까지도 조심해야 하고,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나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보는 그림에서 아는 그림으로 만들어주고, 듣는 음악에서 아는 음악으로 만들어준다.”
나는 태교지도자와 임신부, 신혼부부들이 음악체험, 예술놀이, 미술 작품 감상, 율동 등을 통해 친근하게 예술에 접근하도록 돕고 있다. 조금은 지루하게 답습하던 태교에서 벗어나 예술을 활용한 즐거운 태교가 더 없이 좋기 때문이다. 태교는 누구보다도 엄마의 자세가 중요하다. 크리스천 임신부들이 태교를 통해 자신의 믿음도 재확인하면서 아기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태교가 있을까.



신앙에세이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야치요 온누리교회)

주(主)를 기뻐하기

일본 교회에서는 “일본인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신앙을 다음세대에 잘 계승하지 못한다”는 말을 흔히 한다. 이는 가정 붕괴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의 문제도 있다. 일본 교회는 점점 나이 먹어가고, 젊은이들은 세대 차이를 느껴 더욱 교회에 거리감을 두는 악순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인 한 사람이 아무리 두터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충분히 계승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세대를 초월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배가 높은 사람이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부자유함을 수반한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신앙생활의 패턴을 강조한다면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더욱 어렵다. 신앙을 제대로 계승하려면 자신이 먼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확실히 붙잡고, 어려움에 맞서는 힘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자유로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용인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수가 적다. 일본에서 목회를 하면서 일본인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불충분하다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 중에는 존경할만한 분들도 있었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배울 점도 많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계승이 잘 안 되고 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 교회 예배는 안정되어 있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라는 의식이 너무 강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경외, 겸손, 회개라는 영적인 감각이 약합니다.”
확실히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다. 그러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힘쓰고, 그것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힘든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이 주를 기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온전히 주님께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됨을 기뻐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기쁨 혹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영적인 현실을 봐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힘든 것 뿐이다. 문제는 어려움만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다. 우리가 봐야 할 영적 현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는 상황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이다. 주님이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로새서 1:24).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오직 예수

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요 14:6-7).

예수님은 자신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쓰신 아랍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바’입니다. 아바는 아랍어로 아빠입니다.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에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자신을 절대적 존재라고 내세운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배타적이고, 절대적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장과 그분의 행실과 그분의 능력이 그 주장과 맞는지 보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지도자들은 감히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으로 절대적 진리로 주장하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심판자라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주장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역사적 인물이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이 진짜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

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주장이 틀린 것인지 모르고 했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주장에 삶이 변화 될까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말에 수많은 사람들 따라다니고,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이 일 어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장대로 사셨고, 능력이 나타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부정하려는 수많은 핏박이 있었지만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 다. 그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다른 신도 경배하고 나뉘어져야 좋은 것이라고 해야 포용적인 것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진실 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 아닙니다. 과학적 진리만큼 배타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1더하기 1은 2입니다. 왜 2만 답입니까. 3도 되고, 4도 될 수 있지 않냐고 주장해보아 바보취급 당합니다. 그것을 배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을 말할 때 답이 하나라고 해서 왜 답이 하나만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진정한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지 우리가

유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과 나의 삶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하는 자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포용과 낮아짐

첫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모든 민족을 향한 포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배타적 진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을 향한 포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포용이 없으면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포용으로 나아가면 누구도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 십자가에서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힘과 무력과 어떤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과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절대로 배타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겸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적 포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희생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은 온 세상에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포용의 마음을 이 세상에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서빙고

강서

강촌

고양은평

관악금천

광명

동대문중앙

동작

마포

고여송 박희복

김경희 박계용

김철기 정호경

손소현 김은신

이상옥 김신덕

북누리

정동현 주영일

조경자 권인숙

서대문

편홍열 박 현

강은백 오기호

박연희 김수미

이건영 오기호

정유정 문영주

성동광진

강혜영 김상남

김영균 박재우

장주리 장미례

성북

민선영 허순자

임대환 맹광영

정명선 이정은

양천

이경자 김인경

진정은 이미림

여의도

이은선 신용애

한명윤 유재홍

영등포구로

강동원 황우성

김미옥 김태희

노광숙 박혜숙

민경미 이경옥

이수민 장우현

이영순 이종미

용산

박상훈 김태운

조영구 허진욱

최경희 송현주

이수

주미화 이규화

이촌

김남숙 윤혜정

김 준 김성태

김홍주 신영선

박영미 박형숙

일본어예배

장은진 이혜연

일산

김윤숙 박희숙

박대휘 정무인

송도영 방건동

중종로

이수나 이애리

이은혜 김해수

찬양사역

김형미 한소혜

박은희 전지혜

이수진 박은주

장주희 이수경

전선민 한영옥

정기영 김영아

조지원 최종하

전선희 강은실

최경옥 김슬라

황정연 김진승

황재정 방종애

특별한초대

강선주 박소영

김신연 황혜숙

맹미화 송용재

박육란 이영선

송의진 조선영

정석원 김대삼

기타

김남희 최선희

김미영 최복녀

김종호 김상근

문미영 오주연

유경숙 이명선

유익란 김성은

이연희 이정화

장효원 이주영

정재현 손은형

진가희 김애자

한미진 박영복

OEM

조희영 최숙경

S브릿지

강미경 박숙희

김경희 김연정

김보경 김미미

박수진 이경희

이범식 이우구

양재

강남A

임지원 이정숙

최문경 김 경

강남B

김정란 이은경

노재호 노종구

서수연 안윤진

서혜진 김희경

이강일 김갑선

이선영 이혜화

제갈효정 여동옥

조영재 서장명

최소영 박순옥

한상혜 장영희

분당B

권나영 한정화

박재평 이재학

이승연 문성희

이현영 김재순

차정호 권은경

산본안산

윤정애 김경아

서초B

김현순 권유민

양권석 조환준

이중운 이상도

이준배 이용경

한인숙 홍경선

서초C

임광훈 정치원

강남D

김두한 이동건

윤석권 박주현

이종우 조제열

조유리 신연선

과천의왕

권명중 김상선

민보라 서나영

박종근 박 현

임남섭 정원재

분당A

유경아 김숙희

윤찬정 윤여홍

윤현철 고영신

이동호 김경진

분당B

권나영 한정화

박재평 이재학

이승연 문성희

이현영 김재순

차정호 권은경

산본안산

윤정애 김경아

서초B

김현순 권유민

양권석 조환준

이중운 이상도

이준배 이용경

한인숙 홍경선

서초C

임광훈 정치원

강남D

서초D

김경희 박영미

김미경 박은선

김상미 신종아

이기성 이상록

이성재 정철윤

송파

김도준 김이진

김홍기 최병도

신정숙 장인실

윤희영 박영복

이옥희 안정희

안양평촌

김태선 최원도

연지선 박애란

양재

강대근 정호진

김종만 정동영

김현민 장정영

김현옥 김미갑

박경수 김경학

박은정 이지현

신영환 강국경

안옥영 박용례

유봉희 장미례

정해성 정광진

황원자 백윤옥

특별한초대

송진호 이창훈

푸른누리

김강호 김중호

김인배 허대형

김희정 임주원

백성정 양연주

송진구 손태균

이재환 전용기

전혜선 김성현

기타

한선희 주제욱

Bridge33+

김태건 심효무

민정윤 형이경

박태은 이승애

배승환 권오삼

신홍식 박동수

심하림 광영선

윤자원 노재민

지해미 김경은

최성문 김경기

탁학숙 김재키

홍선옥 이광희

Point5

정희진 가나현

조준희 윤한별

추대희 양해경

대청

길

박진아 임재희

엄소영 정재원

엄영진 이영혜

이명희 최정래

황윤태 김한샘

여호수아

강은혜 김지인

권대우 김홍태

김나현 이혜옥

김찬애 조혜선

김해인 김숙희

마재국 강명진

박정연 김미숙

송현림 김아라

신일환 김대현

신종희 박경진

이동미 김은실

이보람 노정숙

이상은 김동명

이성도 유효정

이영희 김미경

이재범 김 준

이지혜 김수진

이하늘 김수진

장민아 지정희

정선영 김수미

정인혜 송현주

최다영 김미현

황운영 이미정

허브

최은영 강정은

J4U

김진희 박양순

박준호 이석환

선민정 이복영

Pole2

양지혜 허경은

조광희 박용익

SNS

김강산 김경식

김경희 박은희

김도희 민화자

김동현 이재덕

김영하 윤지숙

박가는 강신애

박윤선 김옥숙

이민철 강년수

이정우 임형규

W

김선규 성창섭

김윤미 김수연

김정옥 성창섭

송광명 김승원

이종민 한성규

이 준 민행돈

장우진 금세종

최재희 박혜영

한우리 이나연

안지훈 허려석

윤희영 박은정

이소연 김보라

이유영 신윤희

조수나 이지연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11월 15일(주일) 2부예배

: 수료대상자 오전 8:30분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서빙고 분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양재 사랑성전)

수료예배대상자: 9월 7일 ~ 11월 1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서빙고

노치형 목사반

강정호 구본영

김성겸 김경아

김현석 박미경

송요한 송은영

안미훈

오재열 우인혜

이지선 임미정

지호식 최경선

노규석 목사반

이민정 심미경

서재범 목사반

오갑석 최영미

임용성 목사반

김태숙 김향숙

오은아

김성원 목사반

임삼빈 강희정

황중원 목사반

홍연주

양재

김현실 목사반

오은아